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연중 제5주일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6

불 (1)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시편 138, 1-2, 2-3, 4-5, 7-8)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 In the sight of the angels I will sing your praises, Lord.

(Psalms 138:1-2, 2-3, 4-5, 7-8)

- I w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with all my heart, for you have heard the words of my mouth;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I will sing your praise; I will worship at your holy temple and give thanks to your name. ◎
- Because of your kindness and your truth; for you have made great above all things your name and your promise. When I called, you answered me; you built up strength within me. ◎
- All the kings of the earth shall give thanks to you, O LORD, when they hear the words of your mouth; and they shall sing of the ways of the LORD: "Great is the glory of the LORD." ◎
- Your right hand saves me. The LORD will complete what he has done for me; your kindness, O LORD, endures forever; forsake not the work of your hands. ◎

늦가을 저녁에 시골길을 가노라면 어둠과 추위에 싸여 마음이 절로 외로워진다. 무언가 산 것을 찾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낙엽진 벌거숭이 나무, 싸늘해 보이는 산 등성이, 텅빈 논밭. 어디를 돌아보나 죽은 풍경뿐이다. 그 한가운데 산 것이라곤 내 마음밖에 없다. 그러다가 길이 굽으면서 불 켜져 있는 게 저만치 보인다. 이리 보고 무어라 부르는 것 같다. 찾는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이.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날이 저물어갈 때 침침한 방에 앉아 있다고 하자. 벽도 모두 어스름하고 세간마저 묵묵하다. 그럴 때 귀에 익은 걸음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손이 화로를 피워 놓는다.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가 화로안에서 나고 불길이 인다. 화로 아궁이에서 붉은 빛이 따뜻이 비쳐나와 방안을 아늑하게 밝힌다. 아까와는 얼마나 다른 느낌인가. 모든 것이 혼을 얻어 살아난다. 마치 기가 죽었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피어오르듯이.

그렇다. 불이란 생명과 통하는 것이다. 생활한 우리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징이다. 우리 내심의 가장 산 체험들의 상징이다. 따뜻하고 빛나며 언제나 생동하고 언제나 위로 오른다. 남김없이 위로 솟는 불길은 공기의 움직임 그 대로 따르면서도 한결같이 위로 타오르고 빛을 발하면서 주위를 따듯하게 해준다. 우리 안에서 항상 불타면서 빛이 되어주고, 저열한 힘이 사방에서 억누르려 해도 늘 위를 지향하는 그 무엇과 통한다고 느껴진다. 불은 그 주위를 침투하고 생기를 띠게 하고 승화시킨다. 불이 그 빛을 발할 때마다 곧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이 세상을 밝히고 모든 것에 사무쳐 각각 그 뜻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안에 켜져 있는 저 신비로운 빛의 표징이기도 하다.

▶ 안나회 모임

일시 : 2월 9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장례미사 공지

고 유해연 사비나 자매님
일시 : 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지 : 그린 힐 묘지

▶ 백삼위 골프 동호회 친선 토너먼트

일시 : 2월 22일(토), 오전 10시
장소 : Lakewood Country Club
참가인원 : 선착순 28명
문의 : 김철민 요한 ☎ 310-740-1502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가족미사 밴드 음악봉사자 모집

가족미사(주일 9시 30분)에 함께 하실 음악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어쿠스틱 밴드 사운드로 보컬, 기타, 베이스, 키보드가 가능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 김크리스 레지나 ☎ 213-327-6427 (text)
유기성 안드레아 ☎ 310-363-5720 (text)

▶ 각 단체 물품 정리 공지

1층 복도와 2층 유아실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각 단체별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각 단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물품들을 1층 강당 수납창고 선반에 놓여져 있는 박스에 옮겨 정리 후 박스 겉면에 단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 총무 문상현 대건안드레아 ☎ 213-268-7459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11,685.00	강인모	경철호	권오상	권태만	금동근	김 용	김관기	김교복
주일헌금 \$ 2,590.00	김권일	김대우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현	김여순	김영재
2차헌금 \$ 1,455.00	김옥희	김은주	김종렬	김현숙	남명자	남성철	문성길	박광자
특별기부금 \$ 5,000.00	박순진	박완철	박운모	박인식	박정자	박준범	박진희	배난군
장례미사 \$ 200.00	변복순	서용숙	서은희	서창호	송현지	신동윤	신희정	오세원
미사예물 \$ 4,420.00	오영섭	유경자	윤 철	윤희동	이민상	이영석	이영희	이재용
<u>합 계 \$ 25,350.00</u>	이정미	이정훈	이주창	임연조	임의웅	장가강	장영우	정기은
	정명모	정훈모	조영우	조희남	최민아	최성자	한창주	현석주